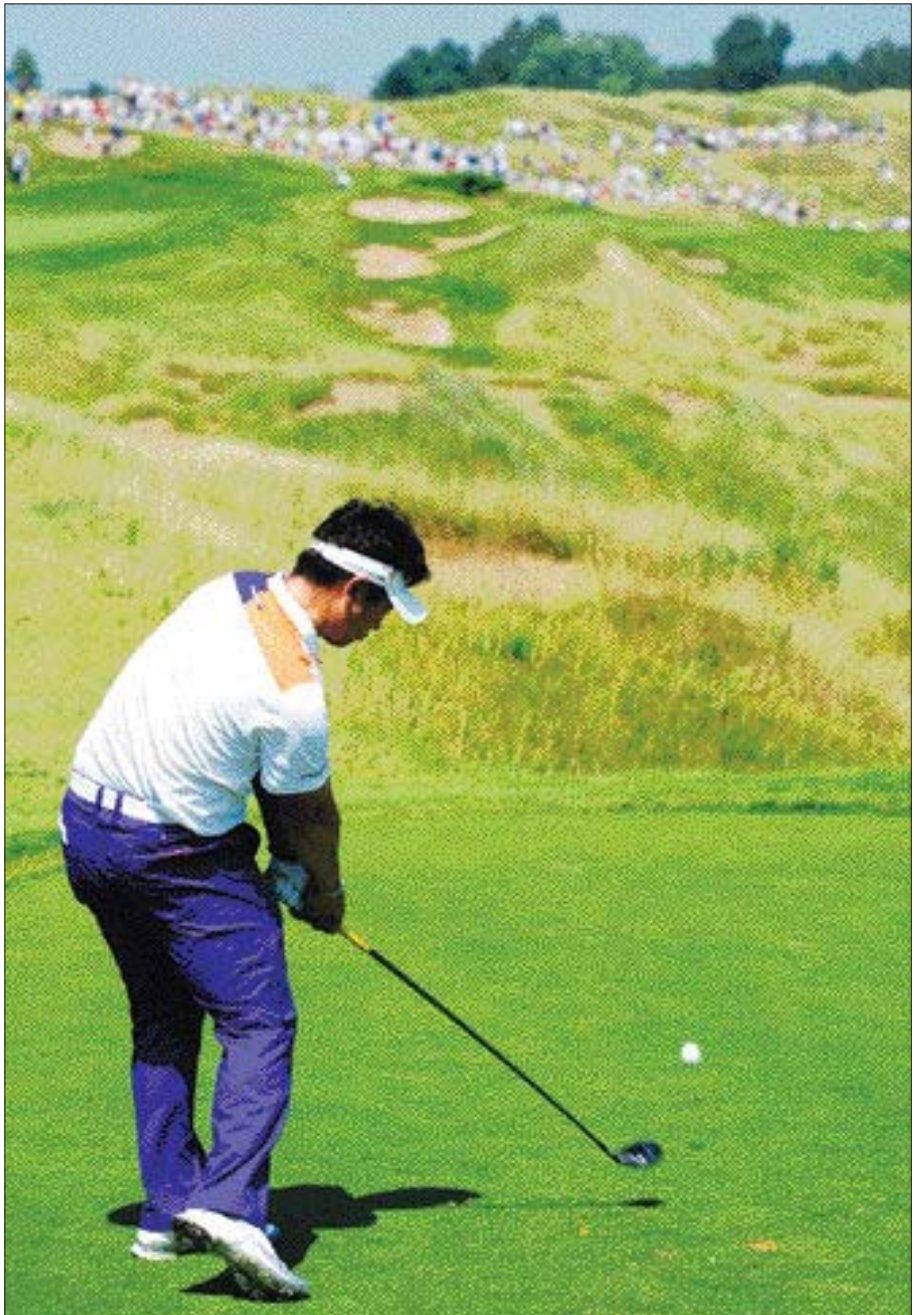


양용은 2년 연속 우승할까

PGA 챔피언십 1R 선두와 4타차... 김경태 2언더 선전

1년만에 메이저골프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다시 만난 양용은(38)과 타이거 우즈(미국)가 첫날부터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지난해 우승자 양용은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위슬링 스트레이츠 코스(파72.7507야드)에서 개막한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꿔 이븐파 72타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양용은이 13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콜러의 위슬링 스트레이치코스(파72.7507야드)에서 열린 2010PGA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아꾸 이븐파 72타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시간호에서 발생한 짙은 안개로 경기 시작 시간이 3시간 가량 지연되면서 절반 가량의 선수들이 경기를 다 끝내지 못한 가운데 양용은은 공동 47위로 첫날을 마쳤다.

양용은은 순위로는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4인더파와 68타를 친 공동 선두 버바 왓슨(미국)과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를 4타차로 추격하며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4개 홀을 마친 어니 엘스(남아공)와 매트 쿠차(미국)도 4언더파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양은은과 동반플레이를 펼친 우즈는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곁들이며 1언더파 71타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양용은은 전반에 버디 없이 보기 1개를 적어냈고 후반들어서는 버디와 보기를 반복하며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타를 잃은 채 마지막 9번홀(파4)에 올라온 양용은은 버디를 잡아내며 첫날을 무난하게 마쳤다.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낸 양용은은 150야드를 남기고 친 두번째 샷을 홀 1m 이내에 붙인 뒤 가볍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이븐파를 만들었다.

양용은은 “안개로 경기가 지연된데다 바람이 좀 불고, 러프도 있을테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난력이기 좋아 나름대로 어려운 것을 잘 막는 것 같다”며 “이번파로 잘 막은 만큼 내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점수를 줄여 컷을 통과한 뒤 본격적인 PGA 챔피언십 타이틀을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즈도 9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1.5m에 떨어뜨린 뒤 버디를 잡아내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우즈는 최근 해왔던 경기보다 훨씬 나아졌다. 좋은 출발이었다. 열심히 경기를 치렀고, 비록 몇 차례 버디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언더파를 기록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을 시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우승하면서 상봉세를 타고 있는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는 버디 6개에 보기 4개를 묶어 2언더와 70타를 쳐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리는 선전을 펼쳤다.

최경주(40)와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
은 2오버와 74타를 쳐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나지완 슬림프 탈출 KIA 4강 힘 받는다



최근 3경기서 홈런 2방... 클린업트리오 완성

시즌 내내 무기력했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타선이 최근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양새다. 해결사 김상현이 부상을 딛고 하반기부터 가세하면서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지난달 27일부터 1군에 합류한 김상현은 복귀 후 홈런 5개에 14타점을 올리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이번 시즌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던 나지람도 조금씩 페이스를 찾고 있어 KIA 팬치카를 웃음 돌리고 있다. 5번 김강현에 이어 3번 나지람까지 정상 배치를 되찾은 뒤 4번 최희갑과 함께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강력한 클린업타리아 대형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조범현 KIA 감독은 “나지람이 살아나야 한 타선을 받는다”라며 슬럼프에 시달리던 나지람에게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왔다.

벤치의 믿음을 등에 업은 나지완은 12일 한화와 청주구장 경기에서 1-3으로 뒤진 5회 역전 결승 3점 홈런을 때렸다.

몸쪽으로 파고드는 안승민의 직구를 놓치지 않고 잡아당겨서 왼쪽 펜스를 훌쩍 넘겼다. 시즌 11호.

이번 시즌 빠른 직구에 약점을 드러내며 어려움을 겪었던 나지완은 경기 후 “몸쪽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잘 맞아떨어졌다. 요즘 타격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맨헌련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08년 입단한 나지원은 지난해 타율 0.263을 치면서 홈런 23개에 타점 73개를 올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특히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친 뒤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까지 차지하면서 야구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는 투수를 상대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월 타율 0.225를 치면서 단 한 개의 아치도 그리지 못하더니 계속 2할 언저리의 타율에서 맴돌았다. 7월에는 아예 13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한 채 32타수 3안타(타율 0.094)의 충격적인 성적표를 손에 들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타격 자세를 바꾸면서 부진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약점인 좌구에 신경을 쓰다가 바깥쪽 변화구에 헛스윙하는 등 난조에 빠졌다. 그러다가 최근 간헐적 타격 자세를 다듬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있다. 8월 두산과 곤산경기를 통해 홈런 4개 포함, 2안타를 치는 등 최근 3경기에서 홈런 2개, 안타 5개에 6타점을 올렸다.

서서히 타격감각을 찾고 있는 나지완이 김상현, 최희섭 앞에서 찬스를 자주 만들어 준다면 4위 싸움으로 바뀔 KIA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김영희씨 장남 대석(사법연수원생)군 김태영
(란체스터 원장)·최명자씨 장녀 명륜(서울 방배초
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부음

▲정명관씨 별세 철민·혜주·연주·현주씨 부친
상=발인 1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안보일씨 별세 인호(동아일보사 광주 근무).
웅기·진희·환희씨 부친상=발인 14일(토) 나주 영
산포 한우리 장례식장 1층. 061-335-4949.

▲최남례씨 별세 박용균·복균·창균·해련씨 모
친상=발인 1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
소. 062-231-8902.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故 박광순 님(여/73세)			
주/부	최성삼 / 미연순 신상 / 장흥순 신상 / 호리동순	호실 발인 장지	401호 8월14일 순창읍성명
자/녀	최영호 / 최인홍		
故 채수경 님(남/89세)			
주/부	채한영 / 송금옥 재영 / 양민자	호실 발인 장지	301호 8월15일 보성내
자/녀	재영애, 재영순 재영자 / 오정호 재영자 / 김태준		
故 이명순 님(여/78세)			
주/부	임민선 / 김영화 호화 / 문옥자 호화 / 정숙자 호화 / 손미자	호실 발인 장지	401호 8월15일 화주동명
자/녀	임민순 / 김영애 정남 / 박종현		
故 선경진 님(남/81세)			
주	선근구, 선영호	호실 발인 장지	402호 8월15일 영북동명
자	선진희		
녀	최경희		

그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상화·참배·종배 씨 부친상 발인 : 8월14일(토) 8시 장지 : 완도 신지면(영락공원)
연락처 : 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 금수장관평호택 (세종시) 85025-2211 (세종시 금수읍 평호리 221-1번지)